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9월 첫째주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9월 첫째주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9월 첫째주는 새로운 학기와 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 학생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고 직장인들은 하반기 업무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더욱 간절하고 의미깊습니다.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9월 첫째주 1: 새학기 시작의 기도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25:4)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시길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주 수요일예배로 모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가을철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는 설렘과 함께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인들에게는 하반기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는 환절기 건강을 잘 챙기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9월부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함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가을 시즌 동안 저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간증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9월 첫째주 2: 추수감사의 기도

“땅이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67:6)

가을은 한 해 동안 농부들이 땀 흘려 일군 결실을 거두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주 수요일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상반기 동안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작은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학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점차 회복되어 가는 일상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여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는 새 학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집중력과 지혜를 주시고, 직장인들에게는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경영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을 통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에서 한 해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잃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9월 첫째주 3: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19)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9월 첫째주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주 수요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부음과 지혜를 더욱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준비와 심방, 상담 등 모든 목회 활동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도들의 영혼을 잘 양육하고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행정과 재정, 교육과 선교, 봉사와 구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히 새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사역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관을 형성하고 또래 친구들과 건전한 교제를 나누며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부 리더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도우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외 선교 사역에도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9월 첫째주 4: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34)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9월 첫째주를 맞이하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9월 첫째주 수요일예배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이나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복리를 우선으로 여기는 공복의 자세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이념과 소속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하여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실업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르신들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육 현장에서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가진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이 단순히 성적과 입시 경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는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주변국들과 평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욱 풍성한 예배를 위한 자료와 말씀을 원하신다면 [사랑의교회 온라인 설교] (<https://www.sarang.org/tv/sermon.asp?sflag=sunposi>)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